

## 目 次

東洋古典國譯叢書刊行辭

이 책에 대하여

四書集註 개정증보판을 내면서

凡 例

集註引用姓氏 略解

### 論語集註

序 說 .....	15		
學 而 第 一 .....	27	先 進 第 十 一 .....	296
爲 政 第 二 .....	51	顏 淵 第 十 二 .....	328
八 佾 第 三 .....	77	子 路 第 十 三 .....	361
里 仁 第 四 .....	107	憲 問 第 十 四 .....	390
公 冶 長 第 五 .....	126	衛 靈 公 第 十 五 .....	434
雍 也 第 六 .....	157	季 氏 第 十 六 .....	464
述 而 第 七 .....	188	陽 貨 第 十 七 .....	482
泰 伯 第 八 .....	219	微 子 第 十 八 .....	510
子 罕 第 九 .....	240	子 張 第 十 九 .....	527
鄉 黨 第 十 .....	268	堯 曰 第 二 十 .....	545

附錄 1. 孔子年譜

2. 春秋列國圖

## 學而\* 第一

\* 《論語》는 《孟子》와 마찬가지로 篇名에 큰 뜻이 없고 篇의 첫머리에 나오는 글자를 따서 이름한 것이다. 단 ‘子曰’은 자주 나오므로 편명으로 삼지 않고 子曰 다음의 ‘學而’를 취하였는 바, 《孟子》 첫 부분의 ‘孟子見梁惠王’에서 孟子見을 빼고 梁惠王을 편명으로 삼은 경우와 같다.

此는 爲書之首篇이라 故로 所記多務本<sup>1)</sup>之意하니 乃入道之門이요 積德之基니 學者之先務也라 凡十六章이라

이 篇은 이 책의 머리편이 된다. 그러므로 기록한 내용이 根本을 힘쓰는 뜻이 많으니, 바로 道에 들어가는 문이요 德을 쌓는 터전이니, 배우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모두 16章이다.

譯註 1. 務本 : 本(근본)은 德行으로 孝弟와 忠信을 이른다. 文藝는 末이고 德行은 근본인 바, 문장과 재주, 지식과 말 등이 모두 文藝이다.

### 1. 子曰 學而時習之 不亦說(悅)乎<sup>1)</sup>아

孔子께서 말씀하셨다. “배우고 그것을 때때로 익히면 기쁘지(재미있지) 않겠는가.

譯註 1. 不亦說乎 : 亦은 조사이다. 不亦은 긍정적인 反問句에 사용하는 투식어로 無乃와 같이 쓰는데, 不亦은 뒤에 대부분 乎자가 붙는 반면 無乃에는 敷자를 붙이는 것이 특징이다. 王引之의 《經傳釋詞》에 “무릇 不亦이라고 말하는 것의 亦은 조사이다. 不亦說乎는 ‘기쁘지 않겠는가.[不說乎]’이고, 不亦樂乎는 ‘즐겁지 않겠는가.[不樂乎]’이고, 不亦君子乎는 ‘군자가 아니겠는가.[不君子乎]’이다. 趙岐가 《孟子》 <滕文公上>의 不亦善乎를 註解하면서 ‘不亦은 亦이다.’ 하였으니, 이는 잘못이다.” 하였다. 朱子 역시 亦으로 해석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오직 《周易》 比卦 六三爻 象傳의

習:익힐 습, 거듭할 습 說:기쁠 열(悅同)

“比之匪人 不亦傷乎”의 《本義》에서 “其亦可傷矣”라 하여 亦을 해석한 것이 보인다. 우리나라 內閣本(官本) 諺解와 栗谷本에는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라고 해석하였으나 굳이 이것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亦을 조사가 아닌 ‘또한’으로 본다면 ‘不亦樂乎’와 ‘不亦君子乎’에는 맞는다 하더라도 첫 번째의 ‘不亦說乎’에는 맞지 않기 때문이다.

學之爲言<sup>1)</sup>은 效也라 人性皆善이나 而覺有先後하니 後覺者必效先覺之所爲라야 乃可以明善而復其初也라 習은 鳥數(작)飛也니 學之不已를 如鳥數飛也라 說은 喜意也니 既學而又時時習之면 則所學者熟而中心喜說하여 其進<sup>2)</sup>이 自不能已矣리라 程子曰 習은 重習也<sup>3)</sup>니 時復(부)思繹하여 浹洽於中이면 則說也니라 又曰 學者는 將以行之也니 時習之면 則所學者在我라 故로 悅이니라 謝氏曰 時習者는 無時而不習이니 坐如尸는 坐時習也요 立如齊(제)<sup>4)</sup>는 立時習也니라

배운다는 말은 본받는다는 뜻이다. 사람의 本性은 모두 善하나 이것을 앞에는 먼저 하고 뒤에 함이 있으니, 뒤에 깨닫는 자는 반드시 先覺者의 하는 바를 본받아야 善을 밝게 알아서 그 本初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習은 새가 자주 나는 것이니, 배우기를 그치지 않음을 마치 새 새끼가 자주 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이다. 說(悅)은 기뻐하는 뜻이다. 이미 배우고 또 때때로 그것을 익힌다면 배운 것이 익숙해져서 中心에 喜說을 느껴 그 진전이 자연히 그만둘 수 없는 것이다.

程子(伊川)가 말씀하였다. “習은 重習(거듭함)이니, 때로 다시 생각하고 演繹해서 가슴속에 흡족하게 하면 기뻐지는 것이다.”

또 말씀하였다. “배우는 것은 장차 그것을 행하려고 해서이니, 때로 익힌다면 배운 것이 내 몸에 있다. 그러므로 기뻐지는 것이다.”

謝氏(謝良佐)가 말하였다. “時習이란 때마다 익히지 않음이 없는 것이니, 앉아 있을 적에 尸童과 같이 함은 앉아 있을 때의 익힘이요, 서 있을 적에 齊戒함과 같이 함은 서 있을 때의 익힘이다.”

譯註 1. 學之爲言：言은 字와 같은 뜻으로 곧 ‘學字의 뜻은’이다.

2. 其進：內閣本에 ‘其心’으로 誤記된 것을 中國本(《四書章句集注》)과 日本의 漢文大系를 참고하여 바로잡았다.

3. 習 重習也：重習은 거듭하는 것으로 여기의 習은 익힌다는 뜻이 아니다. 《周易》에 ‘習坎’이라는 말이 보이는데, 이 역시 坎을 거듭하디의 뜻이다.

4. 坐如尸……立如齊：尸는 尸童으로 옛날 제사지낼 적에 손자의 향렬이 되는 童子를 목욕재계시켜 神位의 앞에 앉혀 놓고 조상의 神으로 받들었는 바, 이를 尸童이라 한다. 이때 시동은 조상처럼 신위에 경건히 앉아 있으므로 앉아 있을 때에는 시동과 같이 한다고 말하고, 재계할 때 역시 경건한 자세를 취하므로 서 있을 때에는 재계함과 같이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 내용은 《禮記》〈曲禮〉에 보인다.

有朋이 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아

同志가 먼 지방(곳)으로부터 찾아온다면 즐겁지 않겠는가.

朋은 同類也니 自遠方來면 則近者可知니라 程子曰 以善及人하여 而信從者衆이라 故로 可樂이니라 又曰 說은 在心하고 樂은 主發散이니 在外<sup>1)</sup>니라

朋은 同類(同志)이니 먼 지방으로부터 온다면 가까이 있는 자들이 <찾아움을> 알 수 있다.

程子(伊川)가 말씀하였다. “善을 남에게 미쳐서 믿고 따르는 자가 많다. 그러므로 즐거울 수 있는 것이다.”

또 말씀하였다. “說(悅)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요, 樂은 發散함을 위주하니 外면에 있는 것이다.”

數:자주 삭 已:그만둘 이, 그칠 이 繹:찾을 역 浹:무젓을 헹 尸:시동 시 齊:재계할 재

譯註 1. 說在心 樂主發散 在外 : 說은 마음속으로 재미를 느끼는 것이고, 樂은 웃고 즐거워하여 외면에 나타나므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人不知而不慍이면 不亦君子乎 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서운해 하지 않는다면 君子가 아니겠는가.”

慍은 含怒意라 君子는 成德之名이라 尹氏曰 學은 在己하고 知不知는 在人하니 何慍之有리오 程子曰 雖樂於及人<sup>1)</sup>이나 不見是而無悶<sup>2)</sup>이라야 乃所謂君子니라 愚謂<sup>3)</sup> 及人而樂者는 順而易하고 不知而不慍者는 逆而難이라 故로 惟成德者能之라 然이나 德之所以成은 亦由學之正, 習之熟, 說之深而不已焉耳<sup>4)</sup>니라

○ 程子曰 樂은 由說而後得이니 非樂이면 不足以語君子니라

慍은 노여움을 품은 뜻이다. 君子는 德을 완성한 이의 명칭이다.

尹氏(尹焞)가 말하였다. “學問은 자신에게 달려 있고, 알아주고 알아주지 않음은 남에게 달려 있으니, 어찌 서운해 할 것이 있겠는가.”

程子(伊川)가 말씀하였다. “비록 <善을> 남에게 미치는 것을 즐거워하나 옳게 여김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운함이 없어야 비로소 이른바 君子라는 것이다.”

내(朱子)가 생각하건대, “남에게 미쳐서 즐거운 것은 順이어서 쉽고, 알아주지 않는데도 서운해하지 않는 것은 逆이어서 어렵다. 그러므로 오직 德을 이룬 君子만이 능한 것이다. 그러나 德이 이루어지는 所以는 또한 배우기를 올바르게 하고 익히기를 익숙히 하고 기뻐하기를 깊이 하여 그치지 않음에 말미암을 뿐이다.”

遠:멀 원 慍:성낼 온 含:머금음 함 悶:근심할 민

○ 程子(伊川)가 말씀하였다. “樂은 說을 말미암은 뒤에야 얻어지는 것이니, 樂이 아니면 君子라고 말할 수 없다.”

- 譯註 1. 雖樂於及人 : 위의 以善及人을 이어 받은 것으로 자신이 性의 善함을 알아서 행한 다음 이것을 미루어 남을 가르침을 이르는 바, 人은 곧 朋을 가리킨다.
2. 不見是而無悶 : 見은 받다의 뜻이며 是는 옳게 여기는 것으로, 남에게 認定을 받지 못하더라도 서운해하지 않음을 이르는 바, 《周易》 乾卦 <文言傳>에 보인다.
3. 愚謂 : ‘어리석은 내가 생각하건대’의 뜻으로, 이는 朱子가 자신의 의견을 말씀하면서 겸사로 쓴 것이다.
4. 德之所以成……說之深而不已焉耳 :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않는 成德君子가 되는 길은 올바른 學而時習之에서 나옴을 말한 것이다.